문제 속에 답(答)이 있다

(시 3:1-8)

2022. 7. 31

말씀: 신광호 위임목사

명성제1교회 주일예배

주일 낮 예배 설교

1. 다윗의 생애를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사는 아픔이 많습니다. 그의 능력과 권력은 가족 관계 안에서는 작동되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삼상 15장~18장).

2.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을 그대로 담은 탄식입니다.

시 3: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정말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요. 그 아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죽고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시 3: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셀라)**

우리도 열심히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갑작스럽게 관계문제,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가 터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 첫째, 하나님을 향한 ( )

시 3: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u>But</u> you are a shield around me, O LORD; you bestow glory on me and lift up my head.

"**그러나**(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뚫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둘째, 하나님을 향한 ( )

시 3: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셀라).** To the LORD I cry aloud, and he answers me from his holy hill. Selah

시 3: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I lie down and sleep; I wake again,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세계적 신경 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 매슈 워커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안타깝게도 사람은 일부러 수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종(種)"이라며 "잠이 짧아질수록 수명도 짧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시 127:2).

시 3: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I will not fear the tens of thousands drawn up against me on every side.

4.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제공한 가해자, 원인 제공자를 향해 시선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 인간을 묵상하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은데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할 때에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루야마 시게오(春山茂雄), **뇌내혁명**(A Great Revolution in the Brain World)에 의하면 인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심히 미워하고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noradrenalin)이라는 강력한 혈압상승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공포심, 두려움을 느낄 때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드레날린(adrenalin)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은 매우 극렬한 독성을 갖고 있어 독사 다음으로 그 독성이 강해 노화를 촉진시키고 모든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면 뇌에서 뇌내 모르핀의 일종인 **베타 엔돌핀**(beta-endorphin)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물질로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젊음을 유지시키고 암세포를 파괴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5.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문제를 기도로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푸시겠어요? 다윗처럼 우리 주님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7/31 요절 말씀 ㉘ 시3: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I lie down and sleep; I wake again, because the LORD sustains me.)